

# 전주 동부권 개발사업 본격나서

### 시설개선 규모 등 타당성 조사·추진방안 마련

호남의 관문으로 신도시 개발과 구 도심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뒤로 밀려왔던 전주역 중심의 전주동부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역사의 전면 개선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동부권 일대에서 추진 중인 첫 마중길 조성사업, 이종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종호반도시 건설 등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와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조사한 뒤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주역 시설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이끌어 내 전면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5월 김광수(전주갑), 정운천(전주을),

정동영(전주병) 등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국회의원-도·시군정책협의회' 등에서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전주역을 문화재급으로 전면 신축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전주역사의 전면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주역사 전면 개선이 실현되면 신도시 개발 등에 밀려 소외받던 전주 동부권 개발에 숨통을 열어주는 동시에 전주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권 일대로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850m 대로의 차도를 줄이고 인도 폭을 확장해 명품 가로 숲을 채워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기 편한 '전주 첫 마중길'이 조성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마중길이 완공되면 버스길 공원과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등 관광객들에게 전통 문화도시 전주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명품 가로 숲은 시민들이 현수한 희망나무로 꾸며지며, 벤치와 파고라, 보행광장 등 각종 휴게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정동영



희망주는 손수레 성금 전달

19일 전주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16명이 전주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저소득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돕는 '희망 주는 손수레' 사업 후원금 107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전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9일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고 김밥 등을 판매하고 모금된 판매수익금이다.

의원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종지구도 이종호수 중심의 이종호반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소룡광장과 가족 숲, 야외무대, 각종 편의 시설 등을 갖춘 이종호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호수 주변 수상산책로와 무대광장 관람석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여기에 기린봉의 생태자원과 아중역

레일바이크, 호동골매립장을 활용한 시민공원 등 주변의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연계할 경우 전주 동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부권 개발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심도시 전주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방송통신진흥원, 이웃돕기 성금전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본부장 변영범)는 19일 진흥원 자체 경진대회에서 획득한 상금 70만원과 직원들이 직접 모금한 8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덕진구청에 전달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 문화의 보급발전 및 무선종사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 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다.

전북본부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진흥원 자체 경진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덕진구에 기부를 결정했다. 이번 성금은 덕진구 관내 위기가정 10세대와 불우 청소년 가정 2세대에 전달됐다.

변영범 본부장은 "1년간 전북본부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내년에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찾아 오겠다"고 다짐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후원에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내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주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총345개소, 11.2km)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집행시설 총137개소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효력

행에 따른 것으로, 해제 대상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 대상시설은 총 137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110개소, 광장 5개소, 학교 18개소, 기타 4개소(문화시설1, 연구시설1, 폐기물처리시설2)이며, 이중 올해 말까지 해제가 가능한 시설 132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있다.

의견청취는 12월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월27일)를 거쳐 12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 금암동 거북바위 주변 마실길 조성완료

### 느티나무·정자·등외자·야간 조명등·안내판 등 설치

불법건축물로 장기간 방치된 전주 구도심의 공한지와 자투리땅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전주시는 총 5억2000여 만원을 투입해 금암동 교통정보센터 인근 거북바위 주변 자투리땅을 헐터와 마실길로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곳에 느티나무와 산사나무, 광장나무, 공조팝나무 등 18종 42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정자·등외자, 야간 조명등, 안내판 등을 설치,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다.

거북바위 마실길과 헐터가 조성됨에 따라 거북바위의 역사적·문화적 가

치를 알리고,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간 마련을 요구해온 인근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그간 거북바위는 수년간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금암동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유산인 거북바위를 상징화·명소화할 수 있는 헐터와 마실길이 조성되면서 지역문화 가치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추진되는 마실길 조성사업들도 거북바위 마실길과 같이 민선 6기 시정 핵심가치인 '생태'를 복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구도심을 만들어 마을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복안이다.

또한 시는 전주를 배경으로 가장 오래된 금암동 거북바위 이야기와 같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발굴해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전주 미래유산프로젝트와 연계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부족한 도심 속 녹색숲 확충을 위해 도시경관을 해치며 흉물로 방치되었던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온통 숲 조성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녹지공간과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부정선거운동 감시단 조직 현금 건넌 3명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9일 지난 총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을 꺾이기 위해 감시원단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등 3명에게 각 200~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부정선거운동 감시를 위해 8명의 감시원들을 고용하고 활동비로 총 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를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 무주태권도원 간부직원 공금 1억 빼돌려 검찰 송치

무주경찰서는 19일 이벤트 대행업체 9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혐의로 세계무주태권도원 직원 김모씨(42,남)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고급 객실과 부대시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업체 9곳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1억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수수 뒷돈거래 업자 조사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완주군 용진읍사무소 공무원에게 공사수수를 대가로 뒷돈을 건넌 조경업자 김모씨(47,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용진읍에서 발주한 2,000만원 상당의 조경공사 사업에 자신의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달

경할 조사결과 김씨는 이벤트 회사로부터 받은 객실 이용료를 법인 통장이 아닌 자신의 통장으로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태권도원 연수원의 객실 예약과 행사 진행, 객실 이용료 대납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